

회귀하지 않는 장면들로 이면을 반문하기

신지이 큐레이터

서술 행위에 적당한 구두점을 사용하지 않으면 읽는 이는 어구들 안에서 헤매게 된다. 그래서 글 안에 구두점을 놓으며 약속을 한다. 쌍점 뒤에 놓인 문장은 앞선 명사를 보조하고 도우며 명백한 것들을 적는다. 쉼표를 사이에 두고 열거된 단어들은 서로를 구분하고 또 연결하며 잠시 휴지를 갖는다. 마침표는 문장을 알맞게 맺는다. 반면에 구두점을 극도로 절제하는 글쓰기가 있다. 의지를, 의미를, 감정을 숨기면서 동시에 열어내는 시가 그렇다.

아무것도 손에 쥐지 않은 상태라면 정영호의 ‘형상’들은 우리에게 정체를 쉬이 드러내지 않는다. 그것이 어떤 이의 얼굴을 하고 있더라도 파악할 길이 묘연하며, 활자에 기대를 걸어 보아도 알파벳, 특수기호와 숫자의 조합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사회적 사건들로 붙은 ‘이름’은 형상을 더욱 미궁에 밀어 넣는다. 전시장의 작품 배치가 관계를 드러내는 힌트일 수 있지만, 작가는 이들을 범주화하여 읽지 못하게 방해하듯 뒤섞어 병치해 걸었다. 의도된 삭제였을 것들, ‘사이 공간’에 숨겨진 구두점이 궁금해졌다. 군더더기지만 마땅한 집작으로, 세 개의 프로젝트는 전시의 제목을 충실히 부연하며 쌍점 뒤에 놓을 수 있다. 나열된 개별 작품들에는 이들을 접붙이는 쉼표가 이어지며, 전시장을 돌아온 걸음은 마침표로 맺으리라.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모두에 마침표가 숨겨져 있다. 적어도 내 생각에는 말이다. 서둘러 덧붙이면 그것은 그들 사이를 끊어내는 맺는 점이 아니라 사이 자체를, 벌어진 공간을 강조하는 방점이다. 더불어 마침표는 온점과 느낌표, 물음표를 모두 포괄한다. 질문과 감정이 양립/교차하는 맺음. 이 글은 사이 공간을 해설하는 지루하지만 정돈된 구두점의 전략을 취하려 하지만 길에 묘수를 열어내는 미궁의 지점도 잊지 않으려 한다. 작가가 구축한 미궁들에 나름의 응수를 두기로 한다.

어쩐지 천체망원경으로 관측된 행성의 지표면으로 보이고, 어찌면 전자현미경으로 투과한 미생물의 사진처럼 보이기도 하다. <Lightless Photography>는 작가가 2019년부터 지속한 프로젝트로 우리가 보고 있는 형상은 아무것도 찍지 않고 찍은 것, 노이즈의 기록이라고 한다. 렌즈가 기능해야 할 곳을 막아 빛을 차단하고, 그 상태에서 디지털 신호의 발생을 기록, 확대한 것이다. 특수기호 #과 숫자로 이루어진 제목은 RGB 방식의 색상을 나타내는 웹 색상 코드이다. 시각화한 신호를 약호로 변환한 것으로 거칠게 요약할 수 있겠다. 육안이 닿지 않는 영역을 기술이 발견했다는 점에서 앞선 인상이 아주 엉뚱했던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실체랄 것이 없어야 하는 상태, 보았다고 여겨지는 무언가가 그곳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없음’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까마득히 멀다. 추상적 신호의 이미지적 기록이 매혹적인 동시에 요원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우선 이곳의 마침표는 신호의 세계와 그것의 인지 불/가능성에 대한 물음으로 함축한다.

역사의 변곡점이 될 순간들이 온라인 안으로 많은 부분 옮겨 갔다. 거처를 옮긴 사건들은 소통을 명분 삼아 폭발적으로 소비되고, 따라잡기 버거울 만큼 매 순간 유입된다. <Unphotographable Cases>는 그러했던 사건들의 이름을 소환한다. 작가는 이들이 미디어 환경에서 특정 기간 회자된 빈도를 그래프로 만들고, 이를 90도 회전, 그러니까 시간의 축을 포개어 도형화했다. 작업은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조각을 출력한 뒤 촬영한 것이다. 이름이 데이터가 되고 다시 압축된 조각이 되면서 그를 찍은 사진은 시작이자 전체였던 이름에 해석도 판단도 허락하지 않게 됐다. 오로지 전할 수 있는 말은 그들을 사진으로 담을 수 없다(unphotographable)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의 용법은 앞선 프로젝트, 그리고 전시의 제목에도 사용된다. ‘없음’(less) 상태, 담지 ‘못하는’(unable), 그래서 ‘멀어진’(out of) 것에서 작가는 사진을 지목한다. 사진이 현실의 기록이자 해석으로써 누려오던 권위를 일부 내려놓은 데에 대한 반응으로 봐도 될까. 일단은 불능의 속절없음에 대한 소회로 사이 공간을 채우기로 한다.

<Face Shopping>의 시작은 작가가 군인 시절 북한군을 오랜 시간 감시했던 경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감시의 불문율은 보되 접촉하지 않는 것이다. 보인다는 것이 실존에 대한 유일한 증거라면 과연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반복, 폐쇄적인 자극은 정보를 추출하기보단 뱉어낼 따름이다. 격자무늬 아래에 창백한 초상들이 보인다. 이들은 어떤 유형화가 가능한데, 짧은 머리 스타일의 백인 남성, 곳곳한 자세와 무표정한 얼굴, 좌우대칭의 이목구비가 아름다운 동시에 위화감을 조성한다. 그리고 이상하리만치 눈동자가 겹쳐진다. 모두는 시가 데이터를 수집·학습해 생산해낸 가상의 인물들로, 필터처럼 씌워진 무늬는 핸드폰 화면의 명멸이 찍힌 것이다. 이제 숫자와 알파벳이 나열된 제목의 수수께끼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때 자동 부여되는 이름이다. 이중의 면에 포착된, 보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 사람으로 보이는 정보값. 부정의 용법은 마지막 작품으로까지 이어져 실재와 허상을 교차하며 맺는 점을 찍는다.

작가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신호의 파동, 미디어 안에서의 사건의 발생, 가상의 현현처럼 윤곽 지을 수 없는 세계 속에서 무한히 이루어지고 영원히 부유하는 것들이다. 그렇기에 온전히 기록해야 한다는 어떤 당위와 과제를 떠올리면 번번이 실패에 이른다. 그의 사진은 이것에서 저것으로 몸을 옮기는 선형의 운동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하나씩 하나씩 원전을 잘라내며 무엇으로도 회귀하지 않는 장면으로 새겨진다. 이렇듯 사진의 역능을 시험하며, 말들을 안으로 삼킴으로써 역설적이게도 그가 상기시키는 것은 현재를 이루고 작동시키는 기저의 역학을 감각하는 것, 나아가 안을 상상하고 반문하는 것이다. 때때로 시는 질문이 스스로 작동하기를, 서서히 솟아나기를 기다리며 숨죽인다.